

전남 동부권

곡성 ‘토종 흑돼지’ 부활

무항생제 자연방목 1000두 본격 출하

어릴적 주변에서 흔히 보던 돼지는 털 색깔이 새까만 흑돼지였다. 강건한 체질과 강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데다 거친 사료를 잘 먹어 체지방이 단단하고 육질이 우수해 고기맛이 담백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더 많은 고기를 원하는 소비시장의 추세에 따라 차츰 외국에서 들어온 개량종 품종 ‘요크셔’ 등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토종 흑돼지가 곡성에서 다시 부활했다.

곡성군은 흑돼지 명성을 되찾고 지역소득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했던 흑돼지 본격 출하를 앞두고 지난 21일

석곡면 청년회관에서 허남석 군수를 비롯한 이상철 의장, 기관사회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시식회를 가졌다.

석곡면은 예로부터 토종 흑돼지가 유명했으나, 돼지의 개량 생산으로 토종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를 돌식권역 추진위원회와 흑돼지 영농조합 법인의 노력 끝에 흑돼지 명맥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흑돼지는 일반적으로 일반 돼지와는 달리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씹을수록 맛이 고소하며 쫄깃하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하되는 토종 흑돼지는 자연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야산에 자연방목하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6개월간 키워 1000두를 출하를 하게된 것으로 마리당 600만원씩 한다.

일반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들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운동량이 부족하고 지방층이 두꺼워 지게 된다.

시식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어릴적 먹어본 맛 그대로다”고 말했다.

허남석 군수는 “흑돼지는 돌식권역의 큰 소득을 안겨줄 것”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토종 흑돼지 명성을 되찾고 ‘부자곡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시인과 떠나는 보성 문학기행

이 작가와 함께 시인의 고향인 노동면 학동리 호미마을과 보성차밭 등을 방문했다.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의 ‘제7회 스웨덴 시카다상’을 수상을 기념하는 문학기행이 최근 열렸다. 이번 기행은 부산문인협회 회원 40여명

〈보성군 제공〉

“구례의 봄 담아 보아요”

郡, 삼행시·디카 사진 콘테스트

구례군은 봄을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과 삼행시를 모집한다.

구례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수유 군락지와 섬진강 벚꽃길을 소재로 한 디카사진을 접수한다. 작품규격은 2MB이상 Raw포맷 또는 JPG(합성사진은 불가)이며, 접수비는 무료다. 1인당 4매까지 응모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산수유 꽃축제 홈페이지(www.sansuyu.go.kr) 디카사진 콘테스트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작품은 ‘구례의 봄’을 주제로 산수유마을과 섬진강변 벚꽃길에서 봄을

만끽하는 관광객의 모습 또는 구례의 봄을 담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물사진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례군은 3월 시제어 ‘산수유’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지리산 구례팔삼행시 짓기’ 코너를 운영한다.

군은 매월 우수작 10작품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증정하고 선정된 작품은 1년 또는 격년 단위로 작품을 발간해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방법은 구례군 홈페이지



(문화관광→커뮤니티→지리산구례팔삼행시 짓기)를 이용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삼행시 짓기는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창으로 구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구례 방문기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 박람회장 진입로 확·포장

내년 4월까지 버스터미널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여수 버스터미널부터 박람회장에 이르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진입주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 전인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다음달 1일부터 1년

간 공사 시행구간의 일부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 통제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 방향으로 2차로가 통제돼 1차로만 일방통행이 가능하고, 반대로 중앙여고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은 전

면통제됨에 따라 모든 차량은 중앙여고에서 시립도서관, 진남경기장,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한다. 또 중앙여고에서 공화동 휴게소 구간은 1개 차로가 통제돼 남은 2차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공사로 인한 교통통제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덕충동 박람회장 입구에서 미평 사회복지관 앞 만흥 IC구간에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양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내일 개소

‘광양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이하 새로일하기 센터)가 25일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산업수요 변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수요를 대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전남에서는 4번째로 지정됐다.

‘새로일하기 센터’는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 ▲진로목표 설정 ▲자기관리법 등 취업을 위한 기본교육수행으로 미취업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취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

다. 취업설계사 5명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새일여성 인터넷 10명을 관내 우량 기업체에 연계 지원해 계속 고용 조건으로 기업체당 6개월간 월 50만원씩의 인건비를 지원, 상시채용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 북

전북대에 탄소 복합재 연구소

道·美 로스알라모스研 공동연구 합의각서

오는 7월 전북대에 복합소재의 구조건전성 분야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소가 설립된다.

전북도와 전북대,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복합소재의 구조건전성(Strucural Health) 관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 공과대학과 알라모스는 20여억 원을 들여 오는 7월 전북대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북도는 이 계획을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연구소는 복합재 구조물의 결함 여부를 실시간 탐지하는 ‘복합재 구조건전성 관리 및 신뢰성 평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43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는 미국 국가 핵안보국 소속으로 연간 2조6000억 원의 예산과 9000명의 직원이 복합소재를 이용한 항공이나 풍력, 원전, 바이오 분야 시설 등의 안전을 연구하고 탐지해 해결하고 있다.

전북도 이강오 부품소재과장은 “국재 공동연구소 설립이 복합재 기반의 항공·풍력산업 발전을 촉진해 전북도의 탄소 밸리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되면 6년간 3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日帝 유적도 국난역사의 일부”

군산시, 보국탑 등 15점 근대역사박물관 야외에 전시

1995년에 철거된 군산의 일제 잔재물들이 16년 만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야외에 복원돼 전시된다.

군산시는 “오는 8월에 개관할 예정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1995년 5월 일제 잔재 청산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한 보국탑 등 15점의 잔해를 복원해 전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일제 잔재물들은 철거당시 군산시에서 전문가와 합의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는 ‘보존’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철거’의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자 철거후 향후 일제의 만행을 전시하자는 합의에 보존하던 석조물 가운데 전시가 능한 파손부재 15점이다.

복원 전시될 잔재물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국탑과 공자묘, 자우해민비, 개항 35주년 기념탑 등이다.

특히 보국탑과 공자묘는 월명산 기슭에 건립된 5층 석탑과 사당으로, 건립자는 군산의 대표적 일본인 지주였던 모리자쿠다. 모리자쿠는 부여 정립사지 오충탑을 모방해 보국탑을 건립하고 그 옆에 공자 등 성현을 모신 사당을 건립했는데, 보국탑에는 ‘일본 천황에게 영원히 충성하겠다’는 방문이 새겨져 있었다.

자우해민비는 일본 정부에서 월명산 정상에 건립한 ‘자혜로운 비(雨)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의

기우제 비(碑)다.

‘개항 35주년 기념탑’은 1934년 개항 35주년을 기념해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번영을 누리기를 위한 의지를 담아 건립한 기념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들 석조물들 중 외형을 확인할 수 있고 글이 새겨진 석조물 15점을 선별해 철거전 모습을 담은 안내판과 함께 현재 건립 중인 박물관의 야외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청소년 및 방문객에게 민족의식 및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립중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총면적 4248㎡)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총 182억원이 투입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그리는 이름 “엄마...”

전안군이 타국생활을 하는 결혼 이주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상상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2일 동향면 천반산 구리교를 정보화 마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다문화 가족들은 화상상봉 서비스를 통해 모국 가족과 서로 화면을 보며 안부를 전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안군이 타국생활을 하는 결혼 이주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상상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2일 동향면 천반산 구리교를 정보화 마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다문화 가족들은 화상상봉 서비스를 통해 모국 가족과 서로 화면을 보며 안부를 전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안군 제공>

단 신

‘전북 순환 관광버스’ 26일부터 운행

전북도는 매주 토요일 도내 유명 관광지를 구경하고 숙박할 수 있는 ‘순환 관광버스’를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8개월간 운행한다.

서울과 부산지역 관광객들은 각각 광화문과 부산역에서 출발해 새만금 전시관과 방조제, 연계

관광지(젓갈시장· 내소사 등)를 둘러보고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하룻밤을 잔 뒤 연계 관광지(경기전·풍남문 등)를 거쳐 돌아간다.

요금은 서울과 부산 모두 ▲성인 9만5000원 ▲어린이 8만5000원이다. 문의(063-280-3333)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정읍시, 공로연수 대상자 ‘시설 소통관’ 임명

정읍시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로연수 파견제도’를 시민과의 소통행정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공로연수 대상자를 각종 시설의 ‘시설 소통관’으로 임명, 파견기간 동안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운영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

영 방안 등을 찾아내고 해결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부 터 경력 또는 관심 분야를 고려해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소통관 등 3개 분야의 소통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국립 민속국악원 예술단 인도 공연

국립 민속국악원(원장 정상열) 전통예술단은 26~29일 인도에서 열리는 ‘한국의 해’ 개막식에서 기념공연을 한다.

국립민속국악원은 한국과 인도간 문화교류 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사절단으로 26~27일 뉴델리와 29일 첸나이에서 공

연한다. 31명으로 구성된 전속예술단은 ‘천 년의 소리, 천 년의 몸짓’이란 타이틀로 ▲기악 합주 ‘남도굿거리’ ▲민속무용 ‘진주북춤’ ▲풍물놀이 ‘판굿과 소고춤’ 등 무용·기악·사물·판소리 등 다양한 민속악을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백성진기자 bs8787@

김제시 내달 8~10일 ‘모악산 벚꽃잔치’

‘제4회 모악산 벚꽃잔치’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금산사 상가 옆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김제시가 모악산 명산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번 벚

꽃잔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홍보전시행사 등으로 특색을 이룰 전망이다. 또 ‘지평선 한우’ 부스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야생화 전시장도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